

새해벽두에 찾으신 버섯공장

2015년 1월 9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선 류경버섯공장을 돌아보시였다.

금방 준공하여 버섯재배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공장을 찾으시였건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장건물들을 산뜻하게 잘 지었다고 하시며 버섯공장을 전국의 본보기가 될수 있게 꾸리라고 하였는데 자신께서 준 과업을 정확히 집행하였다고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특별히 관심하신것은 공장에서 진행하고있는 새로운 버섯재배방법이였다.

배양실을 찾으시고 그에 대하여 세심히 알아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정말 잘했다고, 자신께서 걱정하던 문제를 평양시가 해냈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금치 못하시였다.

공장의 하루 종균접종량과 시간당 접종능력을 료해하시고 하루 접종시간까지 타산해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제부터는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풍성한 식탁을 그려보시는듯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새해벽두에 인민들을 위해 마련된 희한한 창조물을 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1년365일이 이런 날들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